

네이키드퓨처



네이키드 퓨처
패트릭 티커 지음

빅데이터의 이면 다뤄

너무 방대한 나머지 쓸모없는 쓰레기로 치부되던 '빅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메인스트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분석 기술과 다양한 응용력의 발달로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학전문기자 겸 편집자로 활동 중인 패트릭 티커가 쓴 '네이키드 퓨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빅데이터의 이면을 다룬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기기에겐 센서와 디지털 장비가 부착돼 있어,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되고 전송된다. 사람과 사람, 전 세계가 신경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개인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저자는 사물인터넷으로 한층 강화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은 건강관리, 교육, 재난방지,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혁신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미래엔·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동물 홀로코스트
찰스 패터슨 지음

동물·약자 폭력에 경종

동물에 대한 학살과 착취는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자행한 대학살(홀로코스트)과 다를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메트로폴리탄 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 찰스 패터슨은 '동물 홀로코스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과 약자에 대한 폭력에 경종을 울린다.

저자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 채 동물에게 자행하는 폭력이 약자인 인간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산업화된 폭력과 대량학살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통해 입증한다. 또한 나치 독일이 인간 학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대인들을 인간이 아닌 '동물'처럼 보이도록 애를 썼다고 말한다.

이처럼 책은 인간과 동물을 분리하고 동물 지배와 도살을 정당화한 인간의 방식이 역사적으로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휴·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문명의 시작’ 종이...인간의 욕망·역사 총망라

종이의 역사

니콜라스 A. 바스베인스 지음



2000년 종이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나왔다. 사실 인류가 누리는 지금의 문명은 종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번 되짚어보자. 사회를 만들고, 역사를 기록하고,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 모든 일은 종이와 있었기에 가능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종이 없었으면 근대적인 위생 관습도 상상할 수 없다.

그뿐인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전쟁 중 종이탄피 급증...9·11 테러 ‘종이 비’
베토벤·에디슨·셰익스피어 천재성 발현의 장

지폐 역시 종이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 다양한 설계도와 현장의 조감도를 그릴 종이 없었으면 마찬가지로 산업혁명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연컨대, 종이는 인류 문명의 태토이자 화수분이다. 종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종이에 얽힌 인간의 욕망과 역사를 총망라한 책이 나왔다. 국립인문재단 펴낸 연구원인 니콜라스 A. 바스베인스가 펴낸 '종이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역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페이퍼 로드'에 관한 내용을 아우른다.

저자의 이번 책이 반가운 것은 책을 주제로 하는 3부작 중 두 권 '젠들 매드니스'와 '찬란한 문자'가 이미 저 짧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종이와 처음 만들어진 2000년 전

중국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를 만드는 일본 장인들을 둘러본다.

여기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지폐용지를 만들고 있는 크레인 페이퍼와 여러 제지 공장, 종이 수집가 등을 만나 종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파헤친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소리 없는 목격자 '종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1857년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 포이 항쟁은 종이 가폭제가 되었다.

당시 병사들은 종을 사용할 때면 탄약통의 종이를 입으로 뜯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영국 동인도회사에 고용된 힌두교와 이슬람교 병사들에게는 이 같은 행위가 고역이었다. 그것은 탄약통의 종이에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동물의 기름이 칠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병사들의 반발로 세 포이 항쟁이 발발하기에 이른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는 종이 탄피 수요가 급증해, 성경이 인쇄되었던 종이까지 탄피로 사용되는 일도 있었다. 영혼을 구하는 성경이 육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종이 역사의 목격자로 각인된 순간이 있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던 당일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비행기가 충돌한 순간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하늘을 가리며 떨어지는 엄청난 '종이 비'였다. 팩스, 급여 입금 전표, 법원 제출 서류 등 사무적인 내용에서부터 사진, 신분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종이가 쏟아졌다.

목격자로서의 의미를 넘어 종이는 천재들의 영감을 붙잡아준 고마운 사물이기도 했다. 작가, 건축가, 발명가, 엔지니어, 안무가 등 분야를 막론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이들의 노트에는 무궁무진한 창의성이 담겨 있다.

가장 완벽하게 종이를 활용한 사람

은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그가 남긴 스케치가 4000장이 넘는 만큼 그는 종이 위에 아이디어를 그리고 수정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베토벤, 에디슨, 셰익스피어의 영감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종이와 있었기에 가능했다. 쉽게 기록하고, 수정이 가능한 종이 없었으면 이들의 천재성은 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종이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한다. 가볍고 흡수성이 있으며, 흔한데도 휴대하기까지 편리하다. 어쩌면 종이는 인간의 독창성이 탄생시킨 최고의 발명품인지 모른다.

흔히 무언가를 절약하지 않고 낭비할 때 "물 쓰듯" 한다고 한다. 이제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종이 쓰듯" 하지 말라고. 그 종이 한 장에는 지나온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집약되어 있기에.

<21세기 북스·2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부처의 가르침 쉽고 재밌게 풀어내



아함경
한길사 펴낸

이 시대의 선승 학답이 새로운 언어와 체제로 아함의 세계를 평석(評釋)해냈다. 한길사 창립 38주년 기념 기획출판으로 나온 '아함경'(전12책)은 30년의 연구와 편집 4년에 완성한 한국 불교사상사와 불교문화사의 획기적인 성과물이다.

1970년 경주 분황사에서 도문화상을 은사로 법성(法性) 법명으로 출가한 학답은 20대에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

행을 하기도 했으며 '사십이장경강의' '법화삼매의 길' 등 많은 불전 해석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한길사에서 출간한 '물러섬과 나아감'을 비롯해 '반야심경 통석' 등 수많은 저서가 있다.

이번에 펴낸 '아함경'은 원고지만 4만여 매, 1400여 명의 방대한 분량을 불교역사상 최초로 체계화했다. 기존의 네아함, 다섯 니카야의 불전체계를 해체해 귀명장, 불보장, 법보장, 승보장으로 나누어 모두 12책 20권의 새로운 틀로 엮었다. 특히 모든 경을 대승 교설과 회통하여 깊고 명쾌하게 해석함으로써 불교 철학의 진수를 체득하게 했다. 또한 '아함경'의 주요 술어에 대해 남·북전 원어와 비교, 검토해 난해하고 복잡한 경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해탈의 언어로 풀어냈다.

한편 표지는 화가 김혜련의 작품 '조물'으로 장식해 책의 내용과 더불어 형식적 면까지 고려를 했다.

책은 불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쉽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용어와 개념의 한 글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선(禪)과 교(敎)에 대한 이원적 이해를 넘어서는 통합적 해석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년여 지나니 불면의 밤은 나에게 사유와 사유 없음, 언어와 언어의 길이 끊어질 두 모순의 역동적 통합의 시간이었으며, 낮의 밝음도 공하고 밤의 어두움도 공함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실천적 고투의 시간이었다."

<한길사·44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 '아니면' B? ... A '그리고' B



패러독스의 힘
데보라 슈로다-사울니어 지음

세상은 언제나 선택을 강요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해 보자.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광고에는 두 가지 패러독스가 포함된다. 힘과 연비. 극단적으로 힘을 강조한 차가 있고, 극단적으로 연비를 강조한 차가 있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대중적으로 성공한 차를 만들려면 힘

과 연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힘 아니면 연비가 아니라, 힘 그리고 연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다.

500대 기업에 정확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 방법을 컨설팅 해준 방법 그대로를 수록한 책 '패러독스의 힘'이 출간됐다. 액셀 리더십 솔루션 대표이자 훌륭한 팀과 함께 조직 실행과 목표 설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자 데보라 슈로다-사울니어는 안정 '혹은' 변화가 아닌, 안정 '그리고' 변화를 강조하고, 패러독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이 주장하는 '패러독스의 힘'은 바로 '그리고'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처음북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